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 작문에 나타난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실태 및 지도 방안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권 운 정

**중학생 작문에 나타난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실태 및 지도 방안**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권 은 정

논문개요

본 논문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작문 수업 시간에 작성한 작문 결과물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범하는 맞춤법 오류를 유형화하고 자주 틀리는 맞춤법의 공통요소를 뽑아 그 부분에 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탐구 학습 모형에 적용하여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맞춤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지시키고 지도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여 음운론적 오류,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로 나누어 검토하고,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그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혔다.

제 III 장에서는 탐구 학습의 교수-학습이론을 소개하고 맞춤법을 지도하는 데 있어 탐구 학습을 적용하고자 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그 효과와 적합성도 제시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실제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음운론적 오류,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 탐구 학습을 적용하여 지도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 밖의 다양한 활동에서는 ‘국어 생활’ 교과서를 중심으로 활동을 첨가하였다.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맞춤법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띄어쓰기 오류의 분포는 동일한 것이 많이 발견되어 그것들을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어문 규범을 익히지 못하여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들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맞춤법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실생활과 관련된 맞춤법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범위	4
3. 선행 연구의 검토	7
II.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의 유형과 원인	9
1. 음운론적 오류	9
2. 형태론적 오류	12
3. 띄어쓰기 오류	16
III. 맞춤법과 탐구학습의 교수-학습 이론	26
1. 탐구학습의 교수-학습 이론과 모형	26
2. 맞춤법을 적용한 탐구학습 지도안	31
IV. 탐구 학습을 이용한 맞춤법 실제 지도 방안	34
1. 음운론적 오류에 대한 탐구학습	35
2. 형태론적 오류에 대한 탐구학습	38
3.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탐구학습	41
4. 그 밖의 다양한 활동	44
V. 결론	5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어에 관한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다.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 형태에 관한 것과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고, 표준어 규정에는 발음의 변화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각각 외래어를 우리말로 나타내는 규칙과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칙을 규정한 것이다. 대부분 표기법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표준어 규정에 들어 있는 표준 발음법안은 발음에 관한 내용이다.

국어 규범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습득되어서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현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반드시 익혀 두어야만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국어 규범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국어의 어문 규정 중에는 우리말의 정확한 표기법을 정해 놓은 맞춤법 규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맞춤법 사용을 위해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맞춤법 규정에 따라 지도하려고 한다.

실제 학생들이 작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쓸 내용에 관한 고민도 있겠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작문을 지도하다 보면 맞춤법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글 맞춤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맞춤법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맞춤법을 정리하다가 왜 그것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작문을 수집하여 맞춤법의 오류를 찾아내고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

면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의 공통요소를 뽑아 낼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통요소들을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오류를 분석한 결과 음운론적 오류,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음운론적 오류의 원인은 표준발음을 몰라서 빗어지는 오류가 많았고 형태론적 오류는 기저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맞춤법 오류에 대한 실제 지도 방법으로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학생들에게 지도할 맞춤법 지식의 양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발견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쓰기 기능은 고도로 복잡한 사고 과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고등정신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쓰이는 글씨, 맞춤법, 문장부호, 단어의 선택, 통사구조, 문장의 연결 관계,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조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글을 써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쓰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나 장애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¹⁾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제 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국어를 학습한 결과로 학습자가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한샘.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²⁾

국어 교과서의 궁극적 목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며, 언어와 사고 사이의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말의 표기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영어의 알파벳 하나를 틀리게 사용할 경우에는 무지의 소치인 양 부끄러워하면서도 정작 우리글을 한두 자 틀리게 사용할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그릇된 인식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어 교육을 일률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 관찰되는 교사의 수업은 학생 활동이 아닌 교사 활동 중심, 학생의 탐구와 문제 해결이 아닌 일방적인 교과 과정 조직과 설명 중심, 그리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 아닌 해결된 결과 중심의 수업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교사 중심, 설명 중심, 결과 중심의 수업은 중등학교 대부분의 교과 수업에 보편적이다.

국어의 학습활동은 국어사용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길러 주어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고등정신 기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국어를 소중히 여기며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달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초 기능으로서의 국어 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생들의 한

2) 『국어과 교육 과정 (별책 5)』, 대한교과서, 1998, p.29

글 맞춤법 오용 실태와 그 원인을 밝히려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앞으로 국어 맞춤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³⁾

3) 이송월(2004), 「국어 맞춤법의 실태와 지도 방안」, p.2~3

2. 연구 대상 및 범위

2.1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출한作文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오류를 음운론, 형태론, 띄어쓰기의 오류로 나누어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음운론적 오류는 발음상의 혼란으로 인한 오류의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형태론적 오류는 기저형을 잘못 적는 경우의 원인을 밝혔다. 띄어쓰기 오류는 의존명사와 조사, 어미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삼았다.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맞춤법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作文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했던 作文 100여 편을 모아 첨삭을 하였다. 첨삭을 한 글은 다시 오류의 유형별로 나누었다. 그 유형은 음운론적 오류,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집된 글을 한 편씩 읽으면서, 맞춤법,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단어를 골라내어 오류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연구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 분류의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음운론적 오류와 형태론적 오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법 제 1항에 보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발음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해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호정(1990)은 이를 ‘음운론적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로 분류하여 이점을 해결하려 하였다.

학생들과 맞춤법이 어려운 단어나 띄어쓰기가 모호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많이 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 자신이 이 맞춤법을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지과정이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실제 지도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를 분석하면서 맞춤법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띄어쓰기 오류의 분포는 동일한 것이 많았다. 作文 시간마다 자주 질문하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질문을 메모해 두었다가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연구의 범위

맞춤법 오류의 실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지도하는 연구는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맞춤법 지도를 학교교육, 그 중에서도 중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맞춤법 지도를 다루려는 것은 아직까지 맞춤법 지도를 비롯한 모든 교육의 기초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맞춤법 오류 실태와 지도 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은평구에 소재한 덕산중학교, 구산중학교, 은평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작문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나타난 맞춤법의 오류와 띄어쓰기 오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소수 학생의 글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오류가 중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언어적 직관과 문법적 지식으로 오류를 분석하다보니 잘못 분석했거나 잘못 분류된 것이 있을 수 있다.

3. 선행연구검토

어문 규범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이 체계화되면서 규범 오류도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맞춤법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위호정(1990)은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를 조사하여 이를 음운론적 오류(표준 발음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 통사론적 오류, 규정적 오류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①표준발음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 ②표준발음은 알고 있으나 단어의 기저형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진 오류 ③단어의 통사적 기능의 혼동에서 생겨난 오류 ④어려운 정서법 규정이나 개정된 정서법 규정을 모르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결론에서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서법 오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형태음운론적 오류의 교정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국어의 음운의 변동 규칙을 역으로 이용하여 단어의 기저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실험을 한 결과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에 비해서 실태 조사 및 그 분석이 체계적이었고 교정지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특징이다.

감미애(2000)는 중학생 작문에 나타난 오류 실태를 맞춤법, 어휘(낱말 사용상의 오류 ‘것이다’ 사용의 오류), 문법(품사상의 오류, 문장 성분상의 오류), 담화(접속어의 오류, 논리의 오류)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의 오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은 조사에 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감미애는 맞춤법의 오류뿐만 아니라 주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 접속어의 오류, 시제에 나타난 오류 등 폭넓게 연구하였다.

윤상원(2001)은 중학교 2학년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음운의 오류 분석, 어휘의 오류 분석, 문장의 오류 분석 등으로 유형화하여 연구하였다. 음운에서는 통신 언어의 개념과 실태, 음운 및 표기상의 오류, 음절상의 오류, 어휘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의 오류, 문장에서는 문장의 호응과 생략, 조사의 생략과 오용, 잘못된 어순을 다루었다.

홍현선(2002)은 중학교 1~3학년을 총 6개 학급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실태를 분석하였다. 맞춤법의 오류의 실태를 음운론적 오류, 형태음운론적 오류, 통사론적 오류, 규정적 오류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도 방안은 맞춤법 지도 단원의 설정, 실례 중심의 교정지도, 통신 언어와 일상 언어의 구별을 제시하였다.

정영섭(2004)은 언어 대중은 ‘왜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가’와 ‘왜 맞춤법 지도 연구가 필요한가’를 서론에서 언급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맞춤법의 변천과 원리를 분석하고 맞춤법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맞춤법 오류의 구조적 원인으로 맞춤법의 교육적 원인과 방송, 인터넷 등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보았다. 본격적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독후감, 수행평가 과제물 670건을 검토해 맞춤법 오류 실태를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그 밖의 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오류 교정을 위한 한글 맞춤법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김미향(2005)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운,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으로 유형화하여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지도 방안은 일기쓰기, 받아쓰기, 컴퓨터 워드 연습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 탐구학습의 교수모형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이 왜 맞춤법을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인식시키려 하였다.

황성현(2006)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음운론적 오류(ㄱ/ㅋ, ㄴ, ㄷ의 혼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혼란), 형태론적 오류(받침, 잘못된 기저형 유추 및 기저형의 혼란, 연결, 음운의 축약 및 탈락, 음운의 변동현상: 자음동화, 구개음화/ 어미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 통사론적 오류(‘안, 았’의 혼란, 조사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 규정적 오류(-습니다, 이/히, 한글 맞춤법 규정 57항) 등으로 오류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학생 글을 연구한 점이 좋았지만 오류에 대한 교정 지도가 부족했다.

이상의 맞춤법 오류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살펴본 결과 맞춤법 오류 실태나 분석, 오류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고 실제 지도 방안이 미비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오류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의 유형과 원인

1. 음운론적 오류

음운론적 오류는 음성언어에서의 오류가 문자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학생들이 표준발음을 잘 모르거나 다른 음운과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이를 음운론적 오류라 하는 이유는 이 오류가 언어의 음운론 층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위호정 1990:40). 음운론적 오류 중 ‘ㄱ’와 ‘ㄴ’의 혼란이 가장 많았다. 이 두 음운은 현대국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변별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도 혼란이 되고 있다.

1.1 ‘ㄱ’와 ‘ㄴ’의 혼동

현대에 와서 ‘ㄱ’과 ‘ㄴ’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 중의 하나이다. 음성학적 관점에 따라 모음을 분류할 때 이 두 모음은 공통적으로 평순모음이면서 전설모음에 속한다. 두 모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혀의 위치이다. ‘ㄴ’은 ‘저모음’으로 혀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고, ‘ㄱ’은 혀의 중간위치에서 나는 ‘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두 모음이 조음되는 혀의 위치는 매우 근접해 있어서 ‘고모음’에 속하는 ‘ㅣ’와 ‘저모음’에 속하는 ‘ㅏ’처럼 그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모음 모두 중모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김재호 외 1999:182-183) 결국 이 두 모음을 분별할 수 있는 자질로는 구강의 개폐 정도에 따라 반폐모음인 ‘ㄱ’과 반개모음인 ‘ㄴ’이 각각 [e]와 [ɛ]의 음가를 지닌다는 것을 들 수 있다.(김재호 외 1999:184-185) 실제 이 두 발음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작문에 발견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를 ‘경재’로
‘진달래’를 ‘진달레’로

‘민들레’를 ‘민들레’로
‘배풀면’을 ‘배풀면’으로 <작문1>
‘현재’를 ‘현재’로
‘색채’를 ‘색채’로
‘재정’을 ‘제정’으로 잘못 쓰고 있다. 4)

1.2 ‘웬’과 ‘웬’

‘웬지’는 의문사 ‘왜’와 어미 ‘(이)ㄴ지’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웬 사람이니?’의 ‘웬’은 ‘웬’이 아닌 ‘웬’을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웬’과 ‘웬’의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웬’과 ‘웬’을 쓸 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웬’과 ‘웬’은 형태와 의미, 그리고 품사가 다른 말이다. ‘웬 사람이니’의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웬’의 형태는 이유를 뜻하는 ‘왜’에 ‘-(이)ㄴ지’가 결합해 굳어진 부사로 ‘웬지’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1.3 된소리

(2) 가득이나 → 가뜩이나

‘가뜩이나’는 힘에 겹거나 어려운 형편일 때 쓰이는 부사이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데’라는 문장을 쓸 때 ‘가득이나 어려운 형편인데’라고 썼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 맞춤법을 보면 대개 된소리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글맞춤법 제5항을 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나와 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해쓱하다, 거꾸로, 이따금’ 등이 있고 ‘ㄴ,ㄹ,ㅁ,ㅇ’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등이 있다. 다만, ‘ㄱ,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4) 위 예시는 실제 필자가 작문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잘못 쓰고 혼동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아니한다. 그 예로 ‘국수, 색시, 법석, 갑자기, 몹시’ 등이 있다.

1.4 구개음화로 나타나는 오류

(3) 굿이, 구지 → 굳이

‘굳이’란 단어를 ‘굿이’ 또는, ‘구지’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다. 한글 맞춤법 제 6항을 보면,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구개음화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나 반모음 [ㅍ, ㅋ, ㆁ, ㅍ, ㅍ]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이 맞춤법이 틀리는 원인으로는 발음상 ‘구지’라고 나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을 일으켜 ‘굿이’ 또는 ‘구지’라고 잘못 표기하는 것이다.

1.5 ‘ㄷ’소리 받침

(4) 끝끝하게 → 끗끗하게 <작문5>

기저형은 ‘끗끗하게’이지만 발음상 ‘끝끝하게’ ‘ㄷ’발음이 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하는데 이 학생은 기저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적어 틀린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 7항을 보면,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그 예로 ‘덧저고리, 돛자리, 웃어른, 얼핏’ 등이 있다.

1.6 그 밖의 것

(5) 안밖 → 안뀐

‘안뀐’은 안과 밖이란 두 단어가 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밖’이 왜 ‘뀐’으로 변했을까 하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15세기 중세국어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은 ‘ㅎ중성체언’이라고 하여 어간 말에 ‘ㅎ’이 있었던 단어였다. ‘안’이 독립되어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단어와의 결합이 있을 때 ‘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학생은 단순히 ‘안’과 ‘밖’의 결합으로 생각한다.

2. 형태론적 오류

음운론적 오류가 표준어(표준 발음)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면, 형태음운론적 오류는 표준어는 알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는 데 실패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 발음은 알고 있으나 형태소의 기저형을 밝혀 적는 데 실패하여 소리대로 적었거나, 혹은 소리대로 적어야 할 것을 지나치게 기저형을 밝혀 적음으로써 발생한 오류가 형태음운론적 오류이다. 생성음운론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면, 형태소의 표면형(surface form)은 알고 있으나 기저형(underlying form)을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이를 형태음운론적 오류라고 부르는 이유는 형태소의 결합시에 나타나는 음운의 변이에 대해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가 형태음운론이기 때문이다(위호정 1990:48). 이와 같이 형태론적 오류는 음운론적 오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의 작문에서 발견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 ‘-르르-’ 오용

(6) 몰르겠다 → 모르겠다. <작문1>

한참기달려서 → 한참 기다려서 <작문3>

게을르게 → 게으르게 <작문7>

어간 말에 ‘ㄹ’이 없는데도 ‘ㄹ’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ㄹ’을 하나 더 덧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학교에 갈려고 나오니 날씨가 맑았다’, ‘나는 그냥 쓸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지우개를 쓸 수 없었다.’, ‘나는 그 떡을 먹으려고 했다.’ 등이 있다. 어간에 ‘ㄹ’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잘못 쓰이고 있다. 이러한 오기 현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이런 ‘-ㄹㄹ-’ 오용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 방언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류의 말투는 여러 지방의 방언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⁵⁾ ‘게으르다’가 ‘게을르다’로 쓰이는 지방으로는 제주도는 전부, 충남은 대부분이며 충북·전북은 다수이고 경기·강원은 약간으로 경북과 전남은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르다’가 ‘달르다’로, ‘기다린다’가 ‘기달린다’로, ‘기른다’가 ‘길른다’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ㄹ’말음을 가진 어간에 의도형 어미 ‘-려고’가 통합하여 나타나는 ‘알려고’, ‘살려고’의 ‘-ㄹㄹ-’에서 유추된 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즉 ‘살다’, ‘알다’는 어간말음에 ‘ㄹ’을 가졌기 때문에 어미 ‘-려고’를 붙여서 ‘알려고’, ‘갈려고’를 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다’, ‘쓰다’ 등은 어간말음에 ‘ㄹ’이 없는데도 ‘갈려고, 쓸려고’ 등으로 한 것은 ‘ㄹ’을 하나 더 덧붙여 쓴 것으로 잘못이다.

셋째, ‘ㄹ’변칙 용언의 ‘흘러’, ‘잘라’, ‘달라’ 등에서 ‘-ㄹㄹ-’의 유추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ㄹ러(라)’의 관습화된 언어 현상이 다른 말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의 용례들은 어간에 ‘ㄹ’을 붙여 쓰고 있는 반면에 다음의 경우는 어미에 ‘ㄹ’을 첨가하는 ‘하늘 높이 풍선이 날라간다’, ‘지우개를 빌려 온다’, ‘선생님께서 아직 선물을 풀르시지 않으셨다’ 등이 있다. ‘날라간다’는 ‘날아간다’로 써야 하는데 이 오류는 어른들의 말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또 ‘빌려’는 ‘빌어(借)’로 써야 할 곳에 ‘ㄹ’을 덧붙임으로써 ‘貸’의 의미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ㄹ’의 첨가 현상은 때로는 의미의 곡해까지도 일으키고 있다.⁶⁾

5) 김형규,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p.323.

6) 정길남, 『국어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2003, p.210~212.

2.2 ‘안’과 ‘않’

- (7) 않간다 → 안 간다. <작문1>
않하고 → 안 하고 <작문1>
않될것이다. → 안 될 것이다. <작문1>
않갠어도 → 안 갠어도 <작문3>
않듣느냐 → 안 듣느냐 <작문5>

학생들은 ‘안’과 ‘않’의 단어를 쓸 때 많은 혼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안’과 ‘않’의 발음한국 방언 연구이 같기 때문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다’의 준말이다. ‘않’에는 ‘하다’라는 접미사가 포함된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는 것이다.

2.3. ‘되’와 ‘돼’

- (8) 깨끗하게됐으면 → 깨끗하게 됐으면 (‘됐으면’은 ‘되었으면’의 준말이다.)

<작문10>

‘돼’와 ‘되’는 여러 번 지도해도 잘 틀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이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그러나 이 둘이 구분되지 않는 것은 발음상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일어나면 안 되나요?’ 할 때는 ‘되’로 쓰고 ‘일이 잘 안 돼서 큰일이야.’는 ‘돼’를 쓴다. 학생들은 어느 때 ‘되’를 써야 하는지 혼동을 겪는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두 문장이 같은 환경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 ‘오랜만에’와 ‘오랫동안’

- (9) 오랫만에 → 오랜만에 <작문9>
오랜동안 →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한 낱말로 ‘매우 긴 동안’이란 뜻이고,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다. 그런데 ‘오랜만’과 ‘오랫동안’을 잘못 쓰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5 ‘던’과 ‘든’

- (10) 착하던가 → 착하든가 <작문1>
성형이라던가 → 성형이라든가 <작문4>

이 경우는 ‘던’과 ‘든’의 혼란에서 잘못 쓰인 경우이다. ‘던’은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원시인이 사용하였던 돌칼이다.’와 같이 쓴다. 하지만 ‘든’은 선택을 나타낸다. ‘네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라는 문장에서처럼 선택을 나타낼 때 쓰인다.

2.6 그 밖의 것

- (11) 귀 새겨 들으면 → ‘귀 담아 들으면’ 또는 ‘새겨들으면’으로 고쳐야 한다. ‘새겨듣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작문5>

- (12) 폭괄적이게 → 폭발적으로 <작문6>

학생들이 의외로 ‘폭발’을 ‘폭괄’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이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13) 뚜렷하지 → 뚜렷하지 <작문7>

- (14) 인생되로 → 인생대로 <작문8>

- (15) 이쁘거나 → 예쁘거나 (‘이쁘다’는 ‘예쁘다’의 잘못이다.) <작문4>

(16) 느즈막히 → 느지막이 <작문9>

이 단어를 ‘느즈막히, 늦으막히, 느즈막이’ 등으로 잘못 쓰고 있다. 이 맞춤법의 혼란은 ‘느’에 ‘ㄹ’말음이 뒷말에도 이어져 발음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 기저형 ‘느지막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음했기 때문이다.

[부사] ⇒ 느지막하다.

느지막이 떠나다.

오늘도 그 영감님은 복덕방에서 장기를 두다가 느지막이 집으로 가셨다.

[형용사] ⇒ 느지막하다는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다’는 뜻이다.

느지막하게 아침을 먹었다.

(17) 예기 → 얘기 또는 이야기 <작문9>

(18) 비행기를 탃다. → 비행기를 탔다. <작문3>

말도 탃다. → 말도 탔다. <작문3>

3. 띄어쓰기 오류

분석 결과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가장 많이 틀리는 원인은 의존명사, 어미, 조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 단위명사의 오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 43항)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 예로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10개, 7미터’ 등이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개, 마리, 자루’ 등 의존명사도 띄어 쓴다. 따라서 수효를 나타내는 ‘개월, 시간’ 등도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의존 명사는 붙여 쓸 수도 있도록 하였다. 즉 ‘제 한 편, 삼 차, 16 회’ 등은 ‘제일편, 삼차, 16회’ 등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19) 한가지 → 한 가지 <작문8>

몇명 → 몇 명

한개씩 → 한 개씩

3.2 의존명사의 오류

의존명사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지하여 쓰이는 명사이다. 독립성은 없지만 명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단어로 취급한다. 의존명사는 명사적인 기능을 갖는 것 이외에도 부사적인 기능을 갖는 것과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밖에 ‘겸, 내지, 대, 등, 및’ 따위의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에 쓰이는 낱말들을 가리킨다.

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 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 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 가 오래다.

3.2.1 의존명사 ‘때문’

(20) 흰색이었기 때문이었다. → 흰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작문3>

띄어쓰기 ‘제 42항을 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다. 이 학생은 ‘때문’이 의존명사인지 모르고 앞말에 붙여 쓰고 있다. 실제로 우리말에서 의존명

사와 어미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3.2.2 의존명사 ‘것’

(21) 망친다는것도 → 망친다는 것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어쩔것인가 → 어찌할 것인가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작문2>

학생들의 작문에서 의존명사 ‘것’에 대한 띄어쓰기가 많이 틀리고 있다. 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것’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와 ‘것 같다’와 ‘것이다’를 볼 때, ‘것 같다’는 띄어 쓰고 ‘것이다’는 붙여 쓴다고 배운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같다’는 형용사이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형용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은 ‘것’에 대한 띄어쓰기를 어려워한다.

3.3 의존명사와 조사

(22) 만큼

가. 의존명사 ‘만큼’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거나,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낸다.

나. 조사 ‘만큼’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23) 조사 ‘처럼’

‘처럼’은 체언 뒤에 붙어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 소처럼 미련하다. / 아이처럼 순진하다 / 새처럼 날고 싶다

(24) 의존명사 ‘등’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명사 뒤에 쓰여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25) 의존명사 ‘리’

어미 ‘-을’ 뒤에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운양 대감이나 나나 이미 허리 부러진 호랑인데, 저들이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줄 리 있겠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은 잠겨져 있었으므로 나갔을 리 만무하다.

3.4 의존명사와 어미

(26) 데

가. 의존명사 ‘데’

의존명사 ‘데’는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나. 어미 ‘데’

어미 ‘데’는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낸다.

→ 소영이는 말은 잘하는데 글은 잘 못 써.

그 친구는 아들만 둘인데 나는 딸이 둘이야.

(27) 지

가. 의존명사 ‘지’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다.

→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집을 떠나 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나. 어미 ‘지’

→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28) 듯

가. 의존명사 ‘듯’

1 ‘듯이’의 준말.

2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듯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느껴진다.

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나. 어미 ‘듯’

어미 ‘듯’은 앞말에 붙여 쓴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는 물 쓰듯 돈을 쓴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 저 앤 정말 공을 잘 차.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사람도 아는 게 많을수록 조용하단다.
물개가 물고기가 아니듯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란다.

(29) 대로

가. 의존명사 ‘대로’

→ 아는 대로 말한다.

나. 조사 ‘대로’

→ 법대로 처리 하세요.

(30) 어미 ‘르지라도’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며,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경기에 질지라도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그는 힘은 약할지라도 기술이 좋다.

그것이 비록 꾸며 낸 이야기일지라도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3.5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오류

제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ㄴ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 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그가 올 듯도 하다.

책을 읽어도 보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잘난 체를 한다.

분항의 규정은 보조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를 규정한 것이다. 보조 용언도 본 용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어 쓴다고 하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들어가다, 늘어나다, 옹어지다’ 들(제15항 [붙임1](1) 참조)과 본 용언에 보조 용언이 연결된 ‘꺼져 가다, 꺾어 나다, 깨뜨려 버리다’ 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독서의 능률을 보아도 ‘꺼져 가다, 꺾어 나다, 깨뜨려 버리다’ 들이 ‘꺼져가다, 꺾어나다, 깨뜨려버리다’ 들보다 독해가 빠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

더욱이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보조 용언 중에는 원칙대로 띄어 써야 하는 예가 있다. 즉 보조 용언 앞에 조사가 와서,

- 불이 꺼져만 갔다.
- 고생을 꺾어는 났다.

와 같이 쓰이는 ‘가다, 나다’ 등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의 합성이어서,

- 방에 들어가 보아라.
- 물에 떠내려가 버린다.

와 같이 쓰는 ‘보다, 버리다’ 등 보조 용언은 본 용언과 반드시 띄어 쓰도록 한다. 그리고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어울려 된 보조 용언의 경우에는, 의존 명사에 조사가 붙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올 듯하다, 올 성싶다’가 ‘올 듯은 하다, 올 성도 싶다’와 같이 쓰이면, 위의 조사 뒤에 쓰이는 보조 용언 ‘가다, 나다’ 등과 같이 보조 용언 ‘하다, 싶다’는 띄어 써야 하는 것이다. 7)

3.6 그 밖의 오류

3.6.1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반’

- (31) 우리학교 → 우리 학교 (띄어쓰기 오류 ‘우리나라’와 ‘우리 학교’)
우리반 → 우리 반 (띄어쓰기 오류 ‘우리나라’와 ‘우리 반’)

<작문 4>

학생들의 작문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우리나라’를 쓸 때 ‘우리’와 ‘나라’를 띄어 쓸 것인가 붙여 쓸 것인가이다. 국어사전에 ‘우리나라’는 한 단어로 올라와 있지만 ‘우리 반’, ‘우리 학교’는 한 단어가 아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는 고유명사로 붙여 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후 ‘우리’와 ‘학교’는 각각 띄어 써야 함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3.6.2 안되다, 안 되다⁸⁾

- (32) 안보인다 → 안 보인다.

안됐다→ 안 된다. <작문2>

한글 맞춤법 제2항에서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것은 한 단어의 경우에는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띄어 써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안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안 되다’는 ‘되다’앞에 부정 부사 ‘안’이 쓰인 것으로 두 단

7) 이희승(200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p.135~136

8)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62

어이다.

즉, ‘안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①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②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③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 지지 않다, ④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 그것 참 안됐군.
-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참 안돼 보이는 구나.
- 안되는 높은 두부에도 빠라.
-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올해의 작황은 안되어도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예에서는 ‘안되다’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 그 사람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전화가 왔다.
- 아직 저녁 식사 준비가 안 됐다.

와 같은 예에서 ‘안되다’는 ‘되다’의 부정문일 뿐이므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못되다/못되다’가 있다.

3.6.3 명사 ‘때’

(33) 어렸을때부터 → 어렸을 때부터 <작문1>

여기서 ‘때’는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하는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때’는 하나의 명사로 띄어 쓰고 ‘부터’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때’의 띄어쓰기 오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 그 이유는 한 음절로 되어 있어 독립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3.6.4 ‘좀’

(34) 사람좀 → 사람 좀 <작문 5>

‘좀’은 ‘조금’의 준말로 하나의 단어이다. 그런데 한 단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붙여 써서 틀린 경우이다.

물건 값이 좀 비싸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것 같다.
좀 늦었습니다.
손 좀 빌려 주세요.
이것 좀 드세요.

Ⅲ. 맞춤법과 탐구학습의 교수-학습 이론

1. 탐구학습의 교수-학습 이론과 모형

1.1 탐구 학습의 개념

탐구 학습⁹⁾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발견하는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어과 전반에서 탐구학습을 수업에 접목시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언어지식(문법)영역에서는 탐구수업을 현장 수업의 전략으로서 탐구의 특성과 연결시키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탐구 학습을 수업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언어지식(문법)교육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문제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을 주로 설명식, 주입식 수업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문법과 관련된 지식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탐구 방법에 의한 수업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방법, 즉 가장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힘을 가진 방법이다.

1.1.1 탐구 학습이란 무엇인가

탐구 학습이란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이다.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탐구 학습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탐구 과정이란 그 동안 인류가 지식을 발견해 온 과

9) 탐구 학습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들과 다소 혼동될 수 있다.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학습, 비판적 사고, 귀납적 교수법, 발견학습’ 등과 거의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용어들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 중 일부는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일부는 교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 학습에 관한 접근법들은 공통점을 가진다. 그 공통점이란 모두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다루고 경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술어 ‘탐구’는 앞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술어들을 포괄한다. (Barry K. Beyer, 한면의 외 역, 1988, p.106).

정 그 자체이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곧 탐구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

1.1.2 탐구 학습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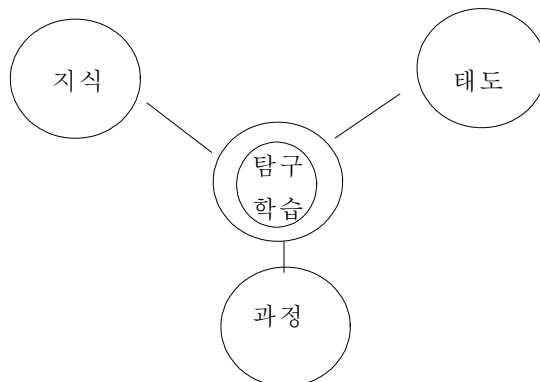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 지식 자체도 불완전하며, 또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식 자체의 학습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탐구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지식이 더 강력하게 내면화될 수 있다. 흥미로운 탐구의 경험은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생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배워지지 않는다.’ (Currie, 1973, p.78에서 재인용)는 라이프니츠의 관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탐구 경험은 현상을 보는 수단인 ‘안목’을 길러 준다는 효과가 있다.

1.2 탐구 학습의 기본 구성 요소

탐구는 학습의 한 방법이다. 다른 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탐구도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2.1 지식



<그림 1> 탐구 학습의 기본 구성 요소

탐구 학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지식 그 자체이다. 탐구 학습에서는 그 시간에 다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잠정적일 수 있으며 장차 연구 성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언어지식(문법)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이 것도 아니다. 교과서 편찬자에 의해 선택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식 자체가 유동적이다.

1.2.2 태도

탐구 학습에서는 과정에서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증거를 존중하며 객관성 있는 태도, 확실한 판단을 연기할 줄 알고, 모호성을 용인할 줄 아는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연기는 객관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의문을 그 의문을 증명해 내기까지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1.2.3 과정

가) 탐구의 의의

탐구 학습은 실제적인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강화되어 간다는 특성을 가진다. 탐구 학습이 기존의 강의식, 설명식, 주입식 방법의 수업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 바로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탐구 학습의 과정은 일회적인 활동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결론은 언제나 재검토와 재검증이 가능하며, 반론에 대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탐구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는 능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언어 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에 대한 탐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며, 국어 및 언어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갈 것이다.

나) 탐구 학습의 단계

탐구 학습의 단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Barry K, Beyer(한면희 외 역, 1988)의 사회과 탐구 학습 이론에 제시된 탐구 학습의 과정이다.

① 탐구 목표(문제)의 정의

탐구는 어떤 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이 ‘어떤 것’이란 질문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으며,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불완전한 결론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 탐구 과정의 제 1차적인 단계는 목표를 처리하기 쉬운 의미로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여 명확히 하는 일이다. 무엇을 탐구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성공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가설의 설정

가설은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나 대안이 될 만한 해결책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목표 설정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는데 통상 목표가 명확히 된 상태라면 가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설정된 경우가 많다.

③ 가설의 검증

일단 가설이 형성되면 적절한 정보나 증거들이 가설을 얼마나 잘 뒷받침해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 자료 평가, 자료의 분석 등을 위한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④ 결론 도출

결론은 가설을 검증하여 내린 결정 사항이다. 이 단계에서 탐구자는 증거를 중심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살피게 된다. 만약 증거가 처음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그것의 재진술이 곧바로 결론이 된다. 그러나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판단되었다면 이 때의 결론이란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에 통합시키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탐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여 얻어낸 결론이 새로운 상황의 자료에도 적용되며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탐구 과정이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새로운 자료에 적용시켜 본 결과 결론이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은 새로운 문제로 돌아가서 ①~④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¹⁰⁾

이상에서 기술된 탐구의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제의 정의 - 문제, 의문 사항의 인식, 문제에 의미 부여, 문제의 처리 방법 모색.
- ② 가설 설정 - 유용한 자료 조사, 추리, 관계 파악, 가설 세우기.
- ③ 가설의 검증 - 증거 수집, 증거 정리, 증거 분석.
- ④ 결론 도출 -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 검토, 결론 추출.
- 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 새로운 자료에 결론 적용, 결론의 일반화 시도.

10)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10~121

2. 맞춤법을 적용한 탐구학습 지도안

다음 지도안¹¹⁾은 이재승의 ‘좋은 국어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시로 나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론적 오류와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학년	중 2-1	생활 국어	대단원명	6. 바르게 쓰기	차시	2/6	쪽수	140
			소단원명	(1) 바른 문장 쓰기				
수업목표		문법 요소의 쓰임을 알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수업방법		탐구 학습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확인 하기	동기 유발 하기 문제 확인 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문법을 잘못 사용해서 의사 소통에 혼란을 겪었거나 오해를 빚은 일이 있으면 말해보게 한다. · 생활 속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못한 경우와 할 수 있었지만 안한 경험을 말해 보게 한다. ○ 문제 제시 및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예문을 제시하고 살펴보게 한다. (예문)선생님-너희들 어제 운동했니? 송이 - 선생님 저는 못 했어요? 선우 - 선생님 저는 안 했어요. ○ 두 예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5분	사전에 생각해 오게 하는 것이 좋다.

11) 이재승, 『좋은 국어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주)교학사, 2005, p.151~152

			· ‘안’과 ‘못’의 의미가 왜 다른지에 대해 공부하게 됨을 인식시킨다.		
자료 분석하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조별 학습	<p>○ 문제 해결 방법 및 순서 탐색하기</p> <p>· 문제 해결 방법을 모둠원끼리 토의하게 한다.</p> <p>-여러 예문을 찾아 쓰임의 공통 요소를 찾아본다.</p> <p>- 인터넷 백과 사전을 이용해 ‘안’과 ‘못’의 쓰임을 찾아본다.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자료에서 ‘안’과 ‘못’의 쓰인 경우를 찾아보게 한다.</p> <p>-조원들끼리 여러 예문을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일반적 원리를 찾아본다.</p> <p>· 여러 방법 중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정해 학습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p>	30분	<p>시간이 부족하면 여러 예를 제시할 수도 있다.</p> <p>사전 인터넷</p>
	자료 모으기		<p>○ 필요한 자료 모으기</p> <p>· 인터넷, 책, 사전 등을 이용해 ‘안’과 ‘못’이 쓰이는 경우를 여러 개 찾아본다.</p> <p>예: 하고 안하고는 네 뜻에 달렸다. 예: 그 남자는 아직도 첫사랑의 여자를 못 잊고 있다.</p> <p>○ 규칙성 발견하기</p> <p>· ‘안’과 ‘못’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p> <p>- ‘안’과 ‘못’은 둘 다 어떤 주체가 행동하고자 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쓰입니다.</p> <p>○ ‘안’과 ‘못’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p> <p>- 안: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이뤄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p>		<p>교실을 순시하며 적절히 지도한다.</p>

			<p>행동 주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p> <p>- 못: 그 주체가 신체적·심리적·상황적 위안에 의해 그 행동이나 작용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p>		
일반화하기	결론도출하기	전체학습	<p>○ 결론 도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활동으로 ‘안’과 ‘못’의 쓰임을 말하게 한다. · ‘안’과 ‘못’ 둘 다 행동하고자 한 바를 이루지 못했음을 나타내지만, ‘안’의 경우는 주체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 행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못’의 경우는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5분	가능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적용하기	적용하기		<p>○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못’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한다. - 나는 결혼 안 해, 아니 못 해. 	5분	

IV. 탐구 학습을 이용한 맞춤법 실제 지도 방안

탐구 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몇 개의 맞춤법 탐구 학습 실제 모형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맞춤법 탐구 학습은 구안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탐구 학습 단계는 탐구 학습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탐구 문제 제시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 가설 검증 및 탐구 - 탐구 결과 정리 및 적용(일반화)’으로 원칙을 정하고 실제 각 단계의 활동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두고자 한다.

탐구 문제 제기는 교사가 제기한다. 탐구 문제를 제시할 때 학생들과 친숙한 예화를 들어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한다. 교사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끝난 후 탐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한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둠이나 학생에게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협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는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가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구성한다. 자료를 통해 비교·대조하고 관찰·검증해서 의문점을 발견하고 학생들 스스로 토의하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결론을 도출하고 적용 및 일반화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에 결론을 적용해 보고 결론의 일반화를 시도하며 정리한다.

이 탐구 학습 모형은 맞춤법에 적용했을 때 설명식 수업보다 학습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탐구 과정에서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법지식을 암기하기 보다는 일반적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다른 예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1. 음운론적 오류에 대한 탐구 학습

학생들의 작문을 분석하고 침착한 결과 음운론적 오류 중 ‘개’와 ‘개’의 발음의 혼란으로 인해 맞춤법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개’와 ‘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결론을 찾아가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 나가야 한다. 교사는 적절히 조언을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학습목표	‘개’와 ‘개’의 발음의 차이를 알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수업방법	탐구 학습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하기 문제 확인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 그 중 한 학생이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먹고 놀았어요.’라고 말한다. 이 말에 다른 한 학생이 ‘멍멍 개를 잡아먹었냐.’고 놀리며 웃는다. ○ 문제 제시 및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와 ‘개’처럼 발음상의 잘못으로 의미 전달에 있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학생들에게 실제 ‘개’와 ‘개’의 발음에 대해 학습할 것을 인식시킨다. 	5분	동기 유발할 때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를 드는 것이 좋다.

전개	가설 설정 자료 수집	<p>○ 가설 설정하기 ‘개’와 ‘개’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입을 별리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p> <p>○ ‘개’와 ‘개’처럼 일상 언어에서 ‘개’와 ‘개’의 발음이 혼동되는 단어나 문장을 모둠별로 찾아본다. <예시> · 내가/ 네가 옳다. · 새/ 세 사람이 들어왔다. ·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데로 가라. · 목매다/ 목메다 · 잠든 채/ 잠든 체</p> <p>○ 모둠별로 ‘개’와 ‘개’의 정확한 발음 을 라디오로 녹음하여 듣거나 TV뉴스 를 녹화해서 보면서 정확한 발음법을 찾아본다.</p> <p>○ 정확한 발음법 발견하기 · 정확한 발음을 듣고 탐구 토의하여 규칙성을 적어보고 말해본다.</p>	30분	<p>시간이 부족하면 여러 예를 제시할 수도 있다.</p> <p>녹음기 인터넷</p>
----	----------------------------------------------	---------------------------------------------------------------------------------------------------------------------------------------------------------------------------------------------------------------------------------------------------------------------------------------------------------------------------------------------------------------------------------------------------------------------	-----	-----------------------------------------------------------------------------

전개	가설 검증	모둠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의 발음 방법 - 아래턱을 조금 내린다. - 이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 만큼 벌린다. - 혀 앞부분을 입천장 쪽으로 조금 올린다. - 입술은 아랫니가 거의 보이게 팽팽하게 벌린다. - 손가락을 넣고 해 본다. - 손가락을 빼고 해 본다. - 반복해서 소리 내어 본다. - 거울을 보며 해 본다. · [ㄴ]의 발음 방법 - 아래턱을 제법 내린다. - 이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 만큼 벌린다. - 혀 앞을 아래턱에 붙인다. - 입술은 아랫니와 윗니가 다 보일 정도로 팽팽하게 벌린다. - 손가락을 넣고 해 본다. - 반복해서 소리 내어 본다. - 거울을 보며 해 본다¹²⁾ 		교실을 돌아보며 적절히 지도한다.
일반 화 하기	결론 도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 도출하기 · ‘ㄱ’는 반폐모음이고 ‘ㄴ’는 반개모음이다. 	5분	가능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정리 하기	적용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학습 결과 발표하기 · 교사가 학습 내용을 정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준다. · 학습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다. · 탐구 학습 결과를 다시 정리한다. 	5분	

2. 형태론적 오류에 대한 탐구 학습

형태론적 오류에서 준말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준말로 인해 기저형을 찾지 못해 맞춤법을 잘못 쓰고 있었다.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안’과 ‘않’, ‘되’와 ‘돼’ 등이 있다. 탐구 학습 모형을 통해 이 둘의 맞춤법 원리를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습목표	‘안’과 ‘않’의 차이를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다.
수업방법	탐구 학습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하기 문제 확인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으로 이끌기 · ‘애들아 아침밥 먹었니?’ ·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등의 대답을 듣는다. ○ 문제 제시 및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는 밥을 안 먹었다’와 ‘철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쓸 때 ‘안’과 ‘않’이 어떻게 다르고 구별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두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않’의 올바른 맞춤법 쓰기에 대해 공부하게 됨을 인식시킨다. 	5분	동기 유발할 때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를 드는 것이 좋다.

12)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발음』 개정판, 교육과학사, p.79~86. ‘ㄱ’와 ‘ㄴ’의 발음방법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자료 분석하기	가설 설정	조별 학습	<p>○ 문제 해결 방법 및 순서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방법을 모둠별로 토의한다. - 여러 예문을 찾아 쓰임의 공통 요소를 찾아본다. - 인터넷 국어사전을 이용해 ‘안’과 ‘않’의 쓰임을 찾아본다.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자료에서 ‘안’과 ‘않’의 쓰인 경우를 찾아보게 한다. - 조원들끼리 여러 예문을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일반적 원리를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방법 중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정해 학습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30분	<p>시간이 부족하면 여러 예를 제시할 수도 있다.</p>
	자료 수집		<p>○ 필요한 자료 모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책, 사전 등을 이용해 ‘안’과 ‘않’이 쓰이는 경우를 여러 개 찾아본다. <p>예: 석기야, 밥 먹지 않고 어디 가니? 석기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었다.</p> <p>예: 그녀는 그 남자를 안 좋아한다. 그녀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p>		<p>사전 인터넷</p>
	가설 검증		<p>○ 규칙성 발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않’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않’은 둘 다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 ‘안’과 ‘않’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아니’의 준말로 짧은 부정문에 쓰인다. - 않: ‘아니하다’의 준말로 긴 부정문에 쓰인다. 		<p>교실을 돌아보며 적절히 지도한다.</p>

			<p>○ 맞춤법 표기할 때 이 둘을 구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다’의 준말이다. · 이 둘은 줄여 쓰기 때문에 맞춤법 표기할 때 혼란을 일으킨다. · 그러므로 ‘하다’라는 의미를 넣어봐서 구별하면 된다. 		
일반 화 하기	결론 도출	전체 학습	<p>○ 결론 도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활동으로 ‘안’과 ‘않’의 쓰임을 말하게 한다. · ‘안’과 ‘않’은 공통적으로 부정문에 쓰이는데 차이점은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5분	가능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 어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정리 하기	적용 하기		<p>○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않’을 넣어 짧은글짓기를 해봅시다. - 나는 개를 안 좋아해. -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5분	

3.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탐구 학습

맞춤법 오류를 분석하면서 맞춤법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띄어쓰기 오류의 분포는 동일한 것이 많았다. 오류의 유형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존명사였다. 같은 형태의 단어가 의존명사일 때도 있고 어미, 조사일 때가 있어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이번 차시에서는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것과 ‘의존명사, 조사, 어미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학습목표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문장에서 의존명사, 조사, 어미를 구분하여 띄어 쓸 수 있다.
수업방법	탐구 학습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확인하기	동기 유발하기 문제 확인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으로 학습할 내용 이끌기 ·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 속담하나 이야기 할게요. · 혹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 들어 봤나요? · 학생들은 질문에 대답한다. · 누가 앞에 나와서 칠판에 써 볼까요? ·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나와 쓰지만 띄어쓰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 문제 제시 및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칠판에 쓸 때 무엇이 어려웠는지 묻는다. ·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해 공부하게 됨을 인식시킨다. 	5분	동기 유발할 때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를 드는 것이 좋다.

자료 분석 하기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조별 학습	<p>○ 문제 해결 방법 및 순서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방법을 모둠끼리 토의하게 한다. - 여러 예문을 찾아 쓰임의 공통 요소를 찾아본다.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의존명사에 대한 띄어쓰기 규정을 찾아본다. 국어사전을 이용해 각각의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품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조원들끼리 여러 예문을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일반적 원리를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방법 중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정해 학습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p>○ 띄어쓰기 규정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 제 42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p>○ 앞에 제시된 속담의 품사 규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팔: 명사 · 심다, 나다: 동사 · 은: 조사 · 데: 의존명사 또는 어미 <p>○ 규칙성 발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어는 띄어 씀으로 - 콩 <u>심은데</u> 콩 나고 팔 <u>심은데</u> 팔 난다. · 이 문장에서 ‘데’가 의존명사이면 띄어 쓰고 어미이면 붙여 써야 한다. 이 	30분	<p>시간이 부족하면 여러 예를 제시할 수도 있다.</p> <p>사전 인터넷</p> <p>교실을 돌아보며 적절히 지도한다.</p>
----------	-----------------------------	-------	------------------------------------------------------------------------------------------------------------------------------------------------------------------------------------------------------------------------------------------------------------------------------------------------------------------------------------------------------------------------------------------------------------------------------------------------------------------------------------------------------------------------------------------------------------------------------------------------------------------------------------------------------------------------------------------------------------------------------------------------------------------------------------------------------------------------------------------------------------------------------------------------------------------------------	-----	--------------------------------------------------------------------------

			<p>를 여러 탐구하여 어떤 품사인지 밝힌다.</p> <p>○ 의존명사 ‘데’와 어미 ‘데’의 차이점 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명사 ‘데’: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어미 ‘데’: 용언의 어간에 붙는 것. <p>○ 속담에서 ‘데’의 품사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데’는 ‘곳’이나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 그러므로 ‘<u>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u>’가 정확한 띄어쓰기이다. 		
일반 화 하기	결론 도출	전체 학습	<p>○ 결론 도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 같은 형태의 단어가 의존명사, 조사, 어미 일 때가 있으므로 구별하여 띄어 쓸 줄 알아야 한다. 	5분	가능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정리 하기	적용 하기		<p>○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명사 ‘데’와 어미 ‘데’를 넣어 짧은글짓기를 하게 한다. -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 - 석기는 노래를 잘하는데 춤은 못 춰. 	5분	

4. 그 밖의 다양한 활동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규범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위주의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국어 규범의 필요성과 국어의 규범들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4.1 단문을 이용한 맞춤법 익히기¹³⁾

(1) 두음법칙

낱말의 첫머리가 아니라도 모음이나 ‘ㄴ’아래에서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선열), 점두사가 붙은 경우(상노인)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맞춤법 10,11,12항)

문제 1 애국 (선열, 선렬)들의 자손은 국가(법율, 법률)로 정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노인, 상로인)들에게도 (경노석, 경로석)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사이시옷

‘순 우리말 + 순 우리말’이나 ‘순 우리말+한자어’ 구조의 복합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환경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나룻배), ‘ㄴ’ 소리가 덧나거나(아랫마을), ‘ㄴㄴ’소리가 덧날 때(허드렛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대가)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는 예외로 한다.(맞춤법 제 30항)

13) 김대행외(2003),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교학사 p.80~91

문제 2 (나루배, 나룻배)를 타고 (아래마을, 아랫마을)로 가서, 비밀을 유
지해 준 (대가, 댓가)로 받은 돈으로 (세방, 셋방)을 얻어 살면서(허드레일,
허드렛일)을 하며 살았다.

(3) ‘-요’와 ‘-오’

연결형 어미는 ‘-이요’로 적고, 종결형 어미인 경우에는 소리가 ‘-이오’로 나더
라도 ‘-이오’로 적는다.(맞춤법 15항)

문제 3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갑: 이것은 (과일이요, 과일이오), 그것은 채소입니다.

을: (아니오, 아니요). 틀림없이 이것도
(과일이요, 과일이오).

(4) ‘-하다’와 ‘-거리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러나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맞춤법
23항)

문제 4 (배불뚝이, 배불뚱기) 내 동생은 장난감(오뚝이, 오뚜기)를 좋아한
다. 그런데 작년에 사 준 (뺨꼭이, 뺨꾸기) 장남감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다.

(5) 준말

‘-지’와 ‘-않-’이 जु면 ‘-잖-’이 된다. ‘-하-’의 경우는 ‘ㅏ’가 준 다음 남은 ‘ㅎ’
이 뒷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와(간편케), 아예 ‘-하-’가 없어
져 버리는 경우 (생각건대)의 두 가지가 있다. (맞춤법 39,40항)

문제 5 (생각건대, 생가건대) 여행할 때 짐은 (간편케, 간편게) 싸는 게 좋

겠어. (그렇잖으면, 그렇찬으면, 그렇잖으면) 구경은커녕 힘만 들 거야.

(6) 어미 ‘-르걸’과 ‘-르게’

어미 ‘-르걸’과 ‘-르게’는 비록 소리는 된소리로 나더라도 ‘-르걸’, ‘-르게’로 적는다. (맞춤법 53항)

문제 6

갑: 나도 따라 (갈걸, 갈겘) 그랬지?

을: 다음 번엔 꼭 데리고 (갈게, 갈께). 약속한다.

(7) ‘든’과 ‘던’

나열하여 선택하게 하는 뜻을 가진 어미는 ‘-든’이며, ‘-던’은 ‘-더+ㄴ’의 구조로서 과거 일을 떠올려 회상하는 뜻을 나타낸다. (맞춤법 56항)

문제 7

갑: 그렇게 배가 (고프든가, 고프던가)?

을: (밥이든 죽이든, 밥이던 죽이던)가릴 처지가 아니었어.

(8) ‘-느라고’는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노라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맞춤법 57항)

문제 8

갑: 왜 이렇게 늦었니?

을: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오노라고).
내 만엔 빨리 (오느라고, 오노라고) 온 것이 이리 되었네.

(9) ‘뿐’

‘뿐’은 조사로 쓰이는 경우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체언 뒤에서는 붙이고, 용언 뒤에서는 띄어 쓴다고 보면 된다.

문제9 “나에겐 오직 (너뿐이야, 너 뿐이야).”라고 하면서, 철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영희에게 싹싹 (빌뿐이었다, 빌 뿐이었다).

(10) ‘지’

‘지’는 어미와 의존명사 두 가지 쓰임이 있다.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써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문제10 갑: 이걸로 허기나 면하십시오.
을: 밥아, 너(본지, 본 지)오래다.
병: 이틀이나 굶어서 이것으로 간에 기별이나 (갈지, 갈 지) 모르겠다.

(11) ‘데’도 ‘지’와 마찬가지로 어미와 의존 명사 두 가지로 쓰인다. ‘데’ 대신에 ‘곳’이나 ‘장소’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자연스러우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면 된다.

문제11 갑: 이번 등산지는 감악산으로 (정했는데, 정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 그 곳은 작년(다녀온데, 다녀온 데)

(12)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열두 켈레). 그러나 숫자와 같이 쓰이거나(3학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육층)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맞춤법 43항)

문제12 (3학년, 3 학년) 교실은 (육층, 육 층)에 있다. 신발장에 신발이 (열두켈레, 열두 켈레)가 놓여 있다.

(13)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본용언이 합성 동사인 경우(떠나가 버렸다)에는 띄어 쓴다. (맞춤법 47항)

문제13 철수는 너무 (아는 체하는, 아는체하는)아이야. 그 빠기는 꼴이란.

그러니 친구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 버렸지, 떠나가버렸지).

4.2 탐구 및 토론을 통한 맞춤법 익히기

4.2.1 광고, 안내문, 간판 이용하기¹⁴⁾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광고, 공원이나 길거리의 각종 안내문, 거리의 간판 등에서 우리말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바른 표현으로 고쳐 보자. 그리고 조사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보자.

<조사 보고서의 예>

모듬:

매체	조사 대상	잘못된 표현	고친 표현
광고	증권 회사 신문 광고	높은 수익을 보장	높은 수익률 보장
안내문	병원 금연 안내문	환자들의 건강을 위 해 흡연을 삼가하십 시오.	환자들의 건강을 위 해 흡연을 삼가십시 오.
간판	얼음 가게	어름 팝니다.	얼음 팝니다.

매체	조사 대상	잘못된 표현	고친 표현

14) 노명완외(2004),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두산, p.86

느낀 점

4.2.2 간판에서 틀린 말 찾기¹⁵⁾

다음은 어느 분식집의 차림표이다. 규범에 어긋나는 것들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왜 이와 같은 잘못된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자.

차림표			
육계장	3,500원	뼈다귀 해장국	4,500원
김치찌개	3,500원	돌솥비빔밥	4,500원
카레라이스	3,500원	돈까스	4,500원
모밀국수	3,500원	수채비	3,500원

4.2.3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띄어 쓰거나 붙여 써야 할 이유를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 ㉠ 해마다 설날에는 온 식구들이 큰집에 가서 차례를 지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큰 집이 필요하게 마련이더라.
-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15)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59

그는 미친 듯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간다.

㉡ 결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상의 유의점>

‘큰집’은 한 단어로 합성어이며 종가(宗家)를 뜻한다. 반면 ‘큰 집’은 두 단어로, ‘규모가 큰 집’을 나타낸다.

‘달 가듯이’에서 ‘듯이’는 어미이므로, 어간 ‘가-’에 붙여 써야 하고, ‘미친 듯이’에서 ‘듯’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화살같이’에서 ‘같이’는 조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하고 ‘바보 같은’에서 ‘같은’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므로 띄어 쓴다.

4.3 짧은 글짓기

다음의 짝들은 모두 띄어쓰기에 주의하여야 할 예들이다. 이들을 넣어 짧은 글을 짓되,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써 보자.

4.3.1 의존명사, 조사의 띄어쓰기¹⁶⁾

- (1) 대로(의존명사)/ 대로(보조사)
- (2) 만큼(의존명사)/ 만큼(보조사)
- (3) 만(의존명사)/ 만(보조사)
- (4) 밖(명사)/ 밖(보조사)
- (5) 바(의존명사)/ -ㄴ 바(어미)
- (6) 데(의존명사)/ -ㄴ 데(어미)
- (7) 같이(부사) / 같이(보조사)

16)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55

<지도상의 유의점>

의존명사는 다른 단어(관형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명사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예로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뻘, 뿐, 적, 줄, 즈음, 지, 터, 곁,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이 있다.

보조사는 체언이나 그 밖의 단어와 결합하여 어떤 뜻을 첨가해 주거나, 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 그 예로 까지, 부터, 은/는, (이)나, (이)나마, 도, (이)든지, (이)라도, 마다, 만, 야(말로), 조차, 처럼, (은/는)커녕 등이 있다.

4.3.2 형태는 비슷하나 의미가 다른 단어 익히기¹⁷⁾

- | |
|--------------------|
| (1) 반드시/ 반듯이 |
| (2) 부딪치다/ 부딪히다 |
| (3) 부치다/ 붙이다 |
| (4) 저리다/ 절이다. |
| (5) 조리다/ 줄이다. |
| (6) 켜/ 채 |
| (7) -든지/ -던지 |
| (8) -(으)로서/ -(으)로써 |

<지도상의 유의점>

형태가 비슷하여 틀리기 쉬운 단어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들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짧은 글을 짓도록 한다. 사전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각자 참신하게 글을 지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4.4 틀리기 쉬운 말 고쳐보기

다음은 표기법에서 틀리기 쉬운 단어이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¹⁸⁾

17)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57

18)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56

- (1)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것 같애.
- (2) 거칠은 별판으로 달려가자.
- (3)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해방이 되었다.
- (4) 그녀는 저명한 과학자가 되서 고국에 돌아왔다.
- (5)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지도상의 유의점>

(1)의 ‘같애’는 ‘같아’로 고쳐야 한다. ‘같다’의 어간 ‘같-’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같아’가 되는 것이다.

(2)의 ‘거칠은’은 ‘거친’이 되어야 한다. ‘거칠-’과 같이 어간이 ‘ㄹ’로 끝나는 용언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ㄹ’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날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날으는’이 아닌 ‘나는’이 된다.

(3)의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로 고쳐야 한다. ‘밥 먹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와 같이 ‘-고 나서’의 앞에는 동사가 온다. 따라서 ‘그리고’와 같은 부사가 올 수 없고 동사 ‘그리하다’의 준말인 ‘그러다’가 와야 한다.

(4)의 ‘되서’는 ‘돼서’로 표기해야 한다. ‘돼서’는 ‘되-’에 연결 어미 ‘-어서’를 통합한 ‘되어서’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가 줄어들면 ‘돼’가 된다. 즉, ‘돼(되어), 돼서(<되어서), 돼라(<되어라)’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와 ‘내’가 발음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기에서도 잘못을 범하고 있다.

(5)의 ‘할게’는 ‘할게’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ㄹ’로 시작하는 어미 ‘-ㄹ게, -ㄹ걸, -ㄹ지’ 등은 ‘ㄹ’ 뒤의 음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의문형 어미 ‘-ㄹ까’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4.5 글을 읽고 고쳐보기

다음 글을 읽고,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19)

윤동주, 그는 참 대단한 시인이었던 것 같다. 그의 생애를 알게 되면서 이상 처럼 아주 천재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천재적이지 않는 점이 오히려 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이제 60년이 다 돼어 가지만, 그의 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30여 편의 시를 통해서만 알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옥중에서 짧은 생애를 마친 까닭에 그의 작품이 더 남지 못 하고, 조그마한 유고 시집 하나만 남겨진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의 시는 고귀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정신이 배여 있어 현재 그의 시를 배우는 우리들에게 그의 도덕적인 삶을 전해 주고 있다. 그의 순수한 영혼을 조금이라도 음미할 수 있다면 나에 영혼이 깨끗해 질 수 있지 않을까? 그의 거울보다 더 욱된 거울을 가진 나는 그 거울이 맑은 빛을 가질 때 까지, 순수한 영혼을 가지기 위해 끈임없이 거울을 닦아야 겠다.

<지도 사항>

시인이었던 → 시인이었던

이상 처럼 → 이상처럼

않는 → 않은

하는 지도 → 하는지도

떠난지 → 떠난 지

돼어 → 되어

수 밖에 → 수밖에

못 하고 → 못하고

배여 → 배어

나에 → 나의

깨끗해 질 → 깨끗해질

때 까지 → 때까지

끈임없이 → 끊임없이

닦아야겠다 → 닦아야겠다.

19)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p.60

4.6 본용언과 보조용언 익히기

<탐구활동> 다음에서 보조 용언을 있는 대로 가려 내어 보자.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콩이나 빵 부스러기 같은 먹을 것을 놓아 준다. 박새가 더러 오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사다가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그 놈들도 먹는다. 밤에 잘 때에는 이 아이들이 물 찾아 개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개울가에 발자국이 있다. 토끼 발자국도 있고, 멧돼지 발자국도 있다. 물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 둔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 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군데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눠 갖는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법정 '버리고 떠나기'에서

4.7 원고지 형식을 이용한 띄어쓰기 익히기

◎ 다음 낱말을 바르게 띄어 써 보자.

4.7.1 콩심은데콩나고팥심은데팥난다.

→ 그는 일 년 열두 달 내내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했다. '새'는 '사이'의 준말로 '쉬다'와 '사이'는 두 개의 독립적인 낱말이므로 띄어 쓴다.

형	은	비	밀	이	드	러	날	것	을	걱	정	하	며	안	절
부	절	못	했	다	.										

→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며 안절부절못했다. '안절부절못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중	학	교	때	의	친	구	네	명	이	우	리	집	에	놀	러
왔	다	.													

→ 중학교 때의 친구 네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와 '집'은 두 개의 독립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열	명	내	지	스	무	명	안	쪽	의	사	람	들	을	초	대
할	예	정	이	다	.										

→ 열 명 내지 스무 명 안쪽의 사람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내지'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뜻하는 부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	는	뜻	밖	의	여	러	가	지	상	황	에	몸	들	바	를
몰	랐	다	.												

→ 그는 뜻밖의 여러 가지 상황에 몸 둘 바를 몰랐다. '여러'와 '가지'는 두 개의 독립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친	구	도	만	날	겸	구	경	도	할	겸	서	울	에	갔	다
을	생	각	이	다	.										

→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에 갔다을 생각이다. ‘겸’은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로 띄어 쓴다.

집	채	만	한	과	도	가	몰	려	와	큰	배	를	삼	키	고
지	나	갔	다	.											

→ 집채만 한 과도가 몰려와 큰 배를 삼키고 지나갔다. ‘만’은 보통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고	향	을	떠	나	온	지	일	년	만	에	부	모	님	을	찾
아	뵈	었	다.												

→ 고향을 떠나온 지 일 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지’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찾아뵈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몇	날	며	칠	을	고	민	하	다	가	그	에	게	내	마	음
을	털	어	놓	았	다	.									

→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몇’은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관형사로 띄어 쓴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작문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 실태를 분석하였다. 오류 실태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틀리거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운론적 오류 중 ‘ㄱ/ㄴ’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형태론적 오류에서는 ‘안’과 ‘않’, ‘되’와 ‘돼’의 오류가 많았다. 그 외 ‘-르르-’ 오용이나 된소리되기, ‘ㄷ’소리 받침을 잘못 적은 경우 등이 있었다.

띄어쓰기에 관한 오류로는 조사, 의존명사,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기, 어미, 단위명사 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존명사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지하여 쓰이는 명사로서, 독립성은 없지만 명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단어로 취급한다. 의존명사는 의존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띄어쓰는 문제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의존명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도 의존명사로서가 아니라 조사나 접사 또는 어미 등으로 쓰일 경우를 잘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이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작문에 나타난 오류의 실태를 파악한 후 지도하기 위하여, 먼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보고 오류에 따른 원인을 밝혔다. 띄어쓰기의 경우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고 있는 ‘의존명사와 조사’, ‘의존명사와 어미’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한 맞춤법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맞춤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한글맞춤법의 규정을 모두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자주 범하는 오류의 공통요소를 뽑아 지도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통해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탐구학습을 적용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맞춤법의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고 지식을 터득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문법교육이 꼭 강의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글쓰기’가 중요시 되면서 ‘쓰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의 쓰기 부분에서 맞춤법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 쓰기 지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맞춤법 교육의 학년별 연계와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국어 생활의 규범은 단순히 단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 문장, 글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국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어, 문장, 글 수준에서 국어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단어 사용을 위해 국어사전 찾기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바르고 정확한 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습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모범적인 말과 글을 많이 듣고 읽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KBS 우리말 겨루기 작가진 (2006), 『우리말 겨루기』, 넥서스.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문법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문법교사용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학교 생활국어 3학년 1학기』
-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학교 생활국어 교사용 지도서』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광해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한국교육미디어.
- 김대행외(2003),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교학사.
- 김선(1998), 『맞춤법·띄어쓰기·원고지 사용법』, 예문당.
- 김재호외(1999), 『신국어학 개론』, 형성출판사.
- 김홍규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천재교육.
- 나찬연(20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월인.
-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한샘.
- 노명완외(2004),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두산.
- 문화관광부(1999), 『우리말 바로 알기』, 문화관광부.
- 박갑수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지학사.
- 이관규(2005), 『학교문법론』, 월인.
- 이익섭(2002),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재승(2005), 『좋은 국어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주) 교학사.
-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발음 (개정판)』, 교육과학사.
- 이희승(200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정길남(2003), 『국어 오류분석』, 한국문화사.
- 조남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한계전외(2002), 『고등학교 국어생활』, (주)블랙박스.

2. 논문

- 김미애(2000), 「중학생 작문에 나타난 오류 실태 분석」, 경남대 교육대학원.
- 김미향(2005), 「표기 오류 실태 분석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연구」, 공주대 대학원.
- 위호정(1990), 「중학생의 정서법 오류 분석 및 그 교정을 위한 실험 연구: 형태 음운론적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윤상원(2000), 「글쓰기에 나타난 국어 사용상의 오류 분석 :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 이송월(2000), 「국어 맞춤법의 실태와 지도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영(1998), 「중등학교에서의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영섭(2004), 「고등학생의 맞춤법 오류 분석과 교정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
- 하현주(2003), 「중학생들의 문장 오류 실태분석과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현선(2003),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맞춤법 오류에 대한 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 황성현(2006),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한글 맞춤법 오류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

ABSTRACT

What errors middle school students actually make i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and spacing words when making compositions and plans for guiding them in their compositions

- With the subj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 1-

Unjung Kwon
Majoring in Korean Educati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understood and analyzed what errors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 1 actually made i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when making compositions in a composition class.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it typified the errors they made, extracted from them the common elements of frequently mistaken rules and studied the rules concerning them. And it applied them to an exploratory learning model and prepared a guidance plan. It aimed at making it well-known that it was essential to teach the rules in teaching the subject of the Korean

language in a middle school and presenting a method of preparing a guidance plan.

Chapter I clarifi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study, examined preceding studies and presented the method and scope of study.

Chapter II analyzed the types of errors i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and spacing words, examined the errors by dividing them into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pacing errors and clarified what resulted in them based on the rules.

Chapter III introduced the teaching-learning theories for exploratory learning, explained the reason why the learning was applied in guiding the rules and presented its effect and fitness.

Chapter IV sought an actual guidance plan. It applied exploratory learning to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pacing errors and prepared a guidance plan. Also, it added various activities besides it centering on the textbook 'Korean Life'.

Chapter IV summarized and presen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students made an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where they made errors, but made many identical errors in spacing words. Focusing on them, I made a guidance plan.

This study showed that many students were terrified by composition because they did not acquire the norms for speech and writing. Considering that in many cases they did not know even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at a very basic level enabled me to confirm that it was necessary to teach the rules related to actual life.

◎ 부록

학생 작문에 나타난 맞춤법 오류실태²¹⁾

<작문1>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사람답게 사는것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흠치고 그러다. 나는 왜 흠치고 싸우는지 몰르겠다. 그냥 착실하게 살고 능력껏 돈을 벌고 그러면 되는데 참 이해가 않간다. 다 사람들은 처음에 성실하는데 부모님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나쁘게 변하나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보인다. 왜냐면 어렸을때부터 욕을 많이하고 싸가지 없게 하고 막 살았으면서 성실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성실하다면 봉사도 하고 인정을 배풀면 되는 걸. 나도 그렇게 안될려고 노력중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착하던가 성실한 사람이 한 10~20% 정도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뒤우치지 않으며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있게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유행에 따라가고 있을때 공부를 더더욱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면서 효도하는 것이며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택하는 것도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또 부지런히 살면서 남들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으며 열심히 활동하며 노력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은 될 것 같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 하는것일까. 지나가다 무뚝 생각이 나기도 한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사람답게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러면 마약거래, 불법취급 이런거를 사람

21) 학생 작문에 나타난 오류는 많으나 여기서는 맞춤법을 중심으로 오류를 분석하였다.

들이 하던데 도대체 하는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런거를 않하고 살 수 없는건지 아니면 만사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 한번 물어보고싶다. 과연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게 이런것이라면 난 절대 반대한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쁜사람처럼 절대 않될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1) 맞춤법의 오류

- 배풀면 → 배풀면 (음운론적 오류 ‘ㅁ’와 ‘ㅂ’)
- 몰르겠다 → 모르겠다. (형태론적 오류 ‘-르르-’오용)
- 않간다 → 안 간다. (형태론적 오류 ‘안’과 ‘않’)
- 않하고 → 안 하고 (형태론적 오류 ‘안’과 ‘않’)
- 않될것이다. → 안 될 것이다. (형태론적 오류 ‘안’과 ‘않’)
- 무뚝→ 문득 (형태론적 오류 기타)
- 착하던가 → 착하든가 (형태론적 오류 ‘든’과 ‘던’)
- 될것이라고 → 될 것이라고 (형태론적 오류 기타)
- 뒤우치지 → 뒤쳐지지 (형태론적 오류 기타)

2) 띄어쓰기의 오류

- 살아야된다. → 살아야 된다.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 보조용언’)
- 없어보인다 → 없어 보인다.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 보조용언’)
- 어렸을때부터 →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때’는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하는 명사로 띄어 써야한다. - 띄어쓰기 오류 기타)
- 안될려고→ 안 되려고 (띄어쓰기 오류 ‘안되다’와 ‘안 되다’)
- 자신있게사는 → 자신 있게 사는 (띄어쓰기 오류 기타)
- 있을때 → 있을 때 (띄어쓰기 오류 기타)
- 하는것일까 → 하는 것일까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 이런거를 → 이런 것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 없는건지 → 없는 것인지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사는게 이런것이라면 →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나쁜사람처럼 → 나쁜 사람처럼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작문2>

철새 도래지

서산·태안의 주민들은 기업도시 웰빙레저단지를 건설하자는 의견으로 철새도래지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모한것이다. 철새도래지를 파괴시키면 그곳에 찾아오던 철새들은 모두 갈 곳을 잃어버리거나 굶어 죽는일도 생길 것이다. 그곳의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중요한 곳을 인간의 손으로 망친다는것도 옳지 못하다. 하지만 그에반해 장점도 있기 마련이다. 철새도래지를 없애고 그곳에 레저단지를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오고 따라서 집값도 비싸지고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도시는 성장할수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레저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철새도래지를 더 발전시켜 사람들의 관광명소가 되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메말라가고 있다. 레저단지를 짓는다면 그많은 소음과 공해는 어쩔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장점과 단점을 꼽은 다음 더좋은쪽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방법일것이다.

1) 맞춤법의 오류

안된다→ 안 된다. (형태론적 오류 ‘되’와 ‘돼’)

2) 띄어쓰기의 오류

무모한것이다. → 무모한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명사‘것’)

죽는일도 → 죽는 일도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망친다는것도 → 망친다는 것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그에반해 → 그에 반해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많이오고 → 많이 오고 (띄어쓰기 오류 기타)

성장할수 → 성장 할 수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어쩔것인가 → 어찌할 것인가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한번 더 → 한 번 더 (띄어쓰기 오류 단위명사)

더좋은쪽 → 더 좋은 쪽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쪽’)

방법일것이다. → 방법일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작문3>

제주도 여행

우리 가족은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제주도를 갈때는 공항에서 한참기달려서 친척들과 비행기를탔다. 나는 태어나서 비행기를 타본적이 없어서 재미있을것같았다.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했었던것같다. 비행기가 이륙할때 쭈은 귀가 멍해졌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잠시 동안이었다. 나는창문으로 밖을 보았다. 밖은 꽤 어두웠었다. 처음에는 공항이보였다. 꽤 멋있었다. 그리고 앉아서 다시 아래를 쳐다보았다. 이제는 조금 높게 올라왔는지 아래가 보이질 않았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얼마나 걸리는가 물어보았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약 1시간이걸린다고 하셨다. 나는 따분했다. 그런데 기차처럼 무엇을 파는사람이 왔다. 어릴 때여서 그냥 준다는 것을몰랐다. 사탕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계속기다렸다. 멍하니 있던사이에 거의다 도착하였다.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만히 서있다 짐을 찾으러 갔다. 그곳에 우리의 짐이 보였었다. 나는 그것을 집고 엄마와 가족과 친척을 따라갔다. 공항을 나오니까 서울에서는 보지못하였던 나무가있고 옆에는 망고 같은 과일을 진열해둔 가게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신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밥을먹을로 어느 바닷가쪽에 있던 횡집에갔다.

나는 원래 회는 싫어하지만 들어가서 하루종일 먹다가 민박집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바닷가를 보다가 해장국을먹었다. 그런데 나는 처음 봤다. 제주도의 어떤사람들은 이상한 말을하는것같더니 사투리 같은 말을 쓰면서 예기하고있었다. 우리는 백년초라는 선인장에서 나는 열매를 껌으로 만들어서 먹고 주스로 먹었다. 그곳의 이름은 별로 생각이나지않지만 맛있던것같았다. 또 굴을 재배하는곳을갔다. 그 곳에는 일정한돈을내고 굴을 마
음껏먹게해주었다.

나는 먹고는 싶었지만 우리가 갔을때는 그 행사를 안하고있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들을했다. 말도탔다. 그렇게 많이 보고와서 다음날 비행기를 탔다. 그때는 아침이라서 잘보였다. 비행기는 구름정도로 온것같았다. 왜냐면 옆에가 흰색이었기때문이었다.

나는 참 인상에남는 여행인것같았다. 뭐 별로 멀리는 않갔어도 참 재미있었던것같다.

1) 맞춤법의 오류

한참기달려서 → 한참 기다려서 (형태론적 오류 '-르르-'오용)

비행기를탔다. → 비행기를 탔다. (형태론적 오류 기타)

예기하고있었다. → 얘기하고 있었다. (형태론적 오류 기타)

말도탔다. → 말도 탔다. (형태론적 오류 기타)

않갔어도 → 안 갔어도 (형태론적 오류 '안'과 '않')

2) 띄어쓰기의 오류

갈때는 → 갈 때는 (띄어쓰기 오류 명사 '때')

타본적이 → 타본 적이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적')

재미있을것같았다. → 재미있을 것 같았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했었던것같다. → 했었던 것 같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이룩할때 → 이룩할 때 (띄어쓰기 오류 명사 '때')

나는창문으로 → 나는 창문으로 (띄어쓰기 오류 기타)

1시간이걸린다고 → 한 시간이 걸린다고 (띄어쓰기 오류 '단위명사')

파는사람이 → 파는 사람이 (띄어쓰기 오류 기타)
것을몰랐다. → 것을 몰랐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계속기다렸다. → 계속 기다렸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있던사이에 → 있던 사이에 (띄어쓰기 오류 기타)
거의다 → 거의 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보지못하였던 → 보지 못하였던 (띄어쓰기 오류 기타)
나무가있고 → 나무가 있고 (띄어쓰기 오류 기타)
밥을먹을로 → 밥을 먹으러 (띄어쓰기 오류 기타)
바닷가쪽에 → 바닷가 쪽에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쪽’)
횃집에갔다. → 횃집에 갔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하루종일 → 하루 종일 (띄어쓰기 오류 기타)
해장국을먹었다. → 해장국을 먹었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처음봤다. → 처음 봤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어떤사람들은 → 어떤 사람들은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말을하는것같더니 →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띄어쓰기 오류 기타)
생각이나지않지만 → 생각나지 않지만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맛있던것같았다. → 맛있던 것 같았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재배하는곳을갔다. → 재배하는 곳을 갔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일정한돈을내고 → 일정한 돈을 내고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마음껏먹게해주었다. → 마음껏 먹게 해주었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갔을때는 → 갔을 때는 (띄어쓰기 오류 명사 ‘때’)
안하고있었다. → 안 하고 있었다. (띄어쓰기 오류)
여러 가지들을했다. → 여러 가지들을 했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보고와서 → 보고 와서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과 보조용언’)
잘보였다. → 잘 보였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온것같았다. → 온 것 같았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흰색이었기때문이었다. → 흰색이었기 때문이었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때문’)
인상에남는 → 인상에 남는 (띄어쓰기 오류 기타)

여행인것같았다. → 여행인 것 같았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재미있었던것같다. → 재미있었던 것 같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작문4>

외모

요즘에 이쁘거나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성형이라던가 샤프로 쌍꺼풀을 만드는일이 많다. 나도 샤프로 쌍꺼풀을 만드는 친구들을 우리학교 우리반에서 본적이 있었다. 그 애들은 자신이 안이 쁘다고 코, 입, 눈등을 성형하고 싫어한다.

외모에 걱정인 사람들은 성형외과를 찾고 하는데, 성형을 하고 나면 부작용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은 자연산 지금의 내 얼굴이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힘들게 낳아 주셔서 내 자신이 태어 났는데 얼굴도 이쁘게 낳아 주셨는데, 그 얼굴을 성형해서 지금 나의 얼굴을 망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은 자연산 지금의 내 얼굴, 모습이 제일 좋다.

자신의 외모가 이상하거나 해도 부모님께 여쭙어 보면 이세상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제일 이쁘다고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나면 기분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형을 하고나서 부모님께 여쭙어 보면 아무 말씀이 없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보았다. 하여튼 내 생각으로는 외모가 이상하다고 성형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쁘지는 않지만 지금 내얼굴에 만족하고 있다. 성형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자신 얼굴에 만족을 하였으면 좋겠다. 지금의 모습이 최고로 이쁘고, 좋은 외모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1) 맞춤법의 오류

이쁘거나 → 예쁘거나 (형태론적 오류 기타)

성형이라던가 → 성형이라든가 (형태론적 오류 ‘든’과 ‘던’)

2) 띄어쓰기의 오류

만드는일이 → 만드는 일이 (띄어쓰기 오류 기타)

우리학교 → 우리 학교 (띄어쓰기 오류 ‘우리나라’와 ‘우리 학교’)

우리반 → 우리 반 (띄어쓰기 오류 ‘우리나라’와 ‘우리 반’)

안이쁘다고 → 안 예쁘다고 (띄어쓰기 오류 ‘안’)

눈등을 → 눈 등을 (여기서 ‘등’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싫어한다. → 싫어 한다.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과 보조용언’)

해야한다. → 해야 한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태어 났는데 → 태어났는데 (띄어쓰기 오류 ‘태어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이세상에서 → 이 세상에서 (띄어쓰기 오류 기타)

듣고나면 → 듣고 나면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과 보조용언’)

내얼굴에 → 내 얼굴에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작문5>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평범하게 사는 것 일까? 요즘 사람들은 자만심에 자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분도 못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소심해서 속으로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 이다. 일찍 일어나는 것과 계획을 잘 세우며 잘 실천하는 것이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남들에게 뒤우치지 않고 사는 것 이다. 예를 들자면 물체,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 하지 않고 꼴꼴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유행도 뒤따라 가지 않는 것 이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 하는 것 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이다. 즉 꿈을 이루는 것 이다. 꿈을 이루려면 물론 공

부를 잘해야한다. 효도하는 것 중에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이다.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다. 부모님 말씀을 잘듣느냐 않듣느냐에 벌써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을 귀 새겨 들으면 확실히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 이다.

넷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다. ‘우리 주위에서는 사람출 되어라. 언제 철들래’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도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1) 맞춤법의 오류

뒤우치지 → 뒤쳐지 (형태론적 오류 기타)

꼴꼴하게 → 꼳꼳하게 (음운론적 오류 ‘ㄷ’소리 받침)

않듣느냐 → 안 듣느냐 (형태론적 오류 ‘안’과 ‘않’)

귀 새겨 들으면 → 형태론적 오류 기타. ‘귀 담아 들으면’ 또는 ‘새겨들으면’으로 고쳐야 한다. (‘새겨들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2) 띄어쓰기의 오류

못 하는 → 못하는 (띄어쓰기 오류 ‘못’)

첫 째 → 첫째 (띄어쓰기 오류 ‘접사’)

것 이다. →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서술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잘세우며 → 잘 세우며 (띄어쓰기 오류 기타)

두려워 하지 → 두려워하지 (띄어쓰기 오류 기타. ‘두려워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뒤따라 가지 → 뒤따라가지 (띄어쓰기 오류 기타. ‘뒤따라가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잘해야한다. → 잘 해야 한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잘듣느냐 → 잘 듣느냐 (띄어쓰기 오류 기타)

사람줄 → 사람 줄 (띄어쓰기 오류. ‘줄’은 부사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다시한번 → 다시 한 번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작문6>

밝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서기 2천 년이 가까워졌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나날이 발전해 가는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통신망도 더욱 널리퍼져 세계와 좀더 다가갈수있게 되었다. 로봇과 자동차를 이용해 손쉽게 물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물 공학의 발달로 질좋은 농산물을 쉽게 접할수 있게 된 거 같다. 그런가 하면 점점 세계의 인구가 많아져 편리한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은 오염되었으며 도덕성의 상실로 이웃과의 사랑은 크게 줄었다. 이제 우리는 밝은미래로 향해 더욱 앞서가야 할것이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뛰어난만큼 과학기술을 지금 자리에서 더 발달 시켜야 한다. 21세기는 인구가 폭발적이게 늘것이다. 그리고 그중 95%가 후진국들이 차지할 것이다. 인구 증가는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불러올것이다. 인구증가의 억제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일의 세계는 과학의 최첨단 기술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과학의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제는 꿈을원대 하게 펼쳐야 할 시기다.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한 나라 처럼 되고 자기의 국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수 있을것이다. 정보와 통신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있다. 통신과 정보로 세계는 가까워지고 먼곳에 선 일어나는 일도 자신의 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수 있게 되었다.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꿈을 원대하게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으로 자신의 꿈을 크게 키워 나가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1) 맞춤법의 오류

뛰어난만큼 → 뛰어난 만큼 (형태론적 오류, 띄어쓰기 오류. 여기서 ‘만큼’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폭발적이게 → 폭발적으로 (형태론적 오류 기타)

2) 띄어쓰기의 오류

우리 나라는 → 우리나라는 (띄어쓰기 오류 ‘우리나라’)

넌리퍼져 → 넌리 퍼져 (띄어쓰기 오류 기타)

다가갈수있게 → 다가갈 수 있게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질좋은 → 질 좋은 (띄어쓰기 오류 기타)

접할수 → 접할 수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된거같다. → 된 것 같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크게줄었다. → 크게 줄었다. (띄어쓰기 오류 ‘분용언과 보조용언’)

밝은미래로 → 밝은 미래로 (띄어쓰기 오류 기타)

할것이다. → 할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늘것이다. → 늘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불러올것이다. → 불러올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과학의기술을 → 과학의 기술을 (띄어쓰기 오류 기타)

꿈을원대 하게 → 꿈을 원대하게 (띄어쓰기 오류 기타)

나라 처럼 → 나라처럼 (띄어쓰기 오류 조사. ‘처럼’은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할수 있을것이다. →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와 ‘것’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루고있다. → 이루고 있다. (띄어쓰기 오류 ‘분용언과 보조용언’)

먼곳에서 → 먼 곳에서 (띄어쓰기 오류 기타)

배울수 → 배울 수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받아 들이는 →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작문7>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끔 부모님께 화를 낼때가 있다. 또 학교에서 다른애랑 싸울때도 있다. 그리고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봉사하는 것 같다. 난 지금까지 봉사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가할 때 조금씩 해야겠다. 나는 착한 일을 해도 별로 착한 것 같지가 않다. 또 남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개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고 게을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사람답다.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도 자기가 잘하는 것이나 개성이 있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어떤직업을 많이한다고 따라 그직업을 선택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

남을 따라하는 것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뭘 할때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맞춤법의 오류

뚜렷하지 → 뚜렷하지 (형태론적 오류 기타)

게을르게 → 게으르게 (형태론적 오류 기타)

2) 띄어쓰기의 오류

다른애랑 → 다른 아이와 (띄어쓰기 오류 기타)

싸울때도 → 싸울 때도 (띄어쓰기 오류 명사 ‘때’)

어떤직업을 → 어떤 직업을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많이한다고 → 많이 한다고 (띄어쓰기 오류 기타)

그직업을 → 그 직업을 (띄어쓰기 오류 기타)

할때도 → 할 때도 (띄어쓰기 오류 명사 ‘때’)

<작문8>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생각 하기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성실하고 착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것 같다. 사람은 자기 인생되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몇명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거친 말밖에 안 하고 착한 사람은 10%정도 있을 것 같다. 남을 위해 봉사를 할줄 알고 착하게 지내면 되는것 같다. 나도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착하다고 할수없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장점 한개씩은 갖고 태어나는데 나는 그 장점이 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다. 나는 그냥 부모님 한테 효도를 할것이다. 나는 이 한가지만 지키면 사람답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복이 올것 같다. 역시 착한 일을 하면 좋은것 같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거고 나쁜것만 하면 죽어서 후회가 될것 같다.

1) 맞춤법의 오류

인생되로 → 인생대로 (형태론적 오류 기타)

2) 띄어쓰기의 오류

생각 하기에는 → 생각하기에는 (띄어쓰기 오류 기타. ‘생각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사는것 → 사는 것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할줄 → 할 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줄’)

몇명 → 몇 명 (띄어쓰기 오류 단위명사)

있을것 → 있을 것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되는것 → 되는 것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할수없다 → 할 수 없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 한개씩 → 한 개씩 (띄어쓰기 오류 단위명사)
부모님한테 → 부모님한테 (띄어쓰기 오류 기타)
할것이다. → 할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한가지만 → 한 가지만 (띄어쓰기 오류 단위명사)
올것 → 올 것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좋은것 → 좋은 것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살거고 → 살 것이고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나쁜짓만 → 나쁜 짓만 (띄어쓰기 오류 명사 ‘짓’)
될것 같다. → 될 것 같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작문 9>

개학식

두 손을번쩍들어 좋아하던 방학이었지만, 한 달이상 집에서 뒹굴뒹굴하니 너무 지겨워 방학이 빨리 끝나길 기다린다. 부푼 마음안고 교실 문을 열면 너무 오랜시간만인지 홀쩍자란 친구들이 가득이다. 학기 중에는 그리 밍기만 하던 친구들이 어찌나 반가운 지모른다. 일년이란 시간동안 정이 다 들었나보다. 친구들과 방학동안 있었던 이런저런예기 도란도란나누면 느즈막히 나타나신 선생님 그동안 잘 쉬셨는지 얼굴빛이 뽀얗다. 선생님도 오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되고 개학식이 시작되었다. TV속 교장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곱게 머리를 빗어 넘기시고 훈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들뜬 우리에게 훈화말씀이 들릴리 없다. 우리가 수다를 떠는 사이 어느덧 개학식이 끝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오랫만에 교탁에 스셔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들의 질문도 받아주셨다. 이런저런 질문이 오가고 한 친구가 방학숙제 얘기를 꺼내자 반 전체가 숨죽이고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윽고 선생님이 ‘안 내도 왜’라고 하자 반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합성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의 얼굴도 덩달아 환해지셨다.

1) 맞춤법의 오류

느즈막히 → 느지막이 (형태론적 오류 기타)

오랜시간만인지 → 오래간만인지 (형태론적 오류 기타)

오랫만에 → 오랜만에 (형태론적 오류 ‘오랜만에’)

2) 띄어쓰기의 오류

손을번쩍들어 → 손을 번쩍 들어 (띄어쓰기 오류 기타. ‘번쩍’은 부사로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한 달이상 → 한 달 이상 (띄어쓰기 오류 기타)

마음안고 → 마음을 안고 (띄어쓰기 오류 기타)

홀쩍자란 → 홀쩍 자란 (띄어쓰기 오류 기타)

반가운 지모른다. → 반가운지 모른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시간동안 → 시간 동안 (띄어쓰기 오류 기타)

다들었나보다. → 다 들었나보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이런저런얘기 → 이런저런 얘기 (띄어쓰기 오류 기타)

도란도란나누면 → 도란도란 나누면 (띄어쓰기 오류 기타)

들릴리 → 들릴 리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리’)

<작문 10>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되기도 한다. 공원이나 공공장소등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통에 버리지않고 아무 곳에도 버리는 사람들이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종이, 캔등의 여러 쓰레기 종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이 버리지 않았더라도 주워서 버려야 한다.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외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것이다.

환경오염이되면 우리가 먹고 살 물이나고기 물에사는 생물 등등 자연이 파괴된다. 그러면 자연뿐만아니라 지구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이가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역을 돌아다니며 거리를 깨끗이 쓸어주시는 일을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등을 늘려서 봉사를 많이해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지구 전체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깨끗하게됐으면 좋겠다. 음식물도 먹을만큼만 먹어 음식을 남기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지금부터라도 환경, 자연을 위해 청소나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더 깨끗하고 자연이 깨끗해질수 있을것이다. 환경이 깨끗해지면 우리들의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다.

1) 맞춤법의 오류

깨끗하게됐으면 → 깨끗하게 됐으면 (형태론적 오류 ‘되’와 ‘돼’, ‘됐으면’은 ‘되었으면’의 준말이다.)

2) 띄어쓰기의 오류

원인이되기도 → 원인이 되기도 (띄어쓰기 오류 기타)

공공장소등에 → 공공장소 등에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등’)

있는데도 → 있는 데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데’)

버리지않고 → 버리지 않고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 보조용언’)

캔등 → 캔 등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등’)

방법외에도 → 방법 외에도 (띄어쓰기 오류 기타)

여러가지 → 여러 가지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있을것이다. →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환경오염이되면 → 환경오염이 되면 (띄어쓰기 오류 기타)

물이나고기 → 물이나 고기 (띄어쓰기 오류 기타)

물에사는 → 물에 사는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자연뿐만아니라 → 자연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오류 기타)

나이가많은 → 나이가 많은 (띄어쓰기 오류 기타)

활동등을 → 활동 등을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등’)

많이해서 → 많이 해서 (띄어쓰기 오류 기타)

뿐만아니라 →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오류 기타)

먹을만큼만 → 먹을 만큼만 (여기서 ‘만큼’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지금보다더 → 지금보다 더 (띄어쓰기 오류 기타)

깨끗해질수 → 깨끗해질 수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있을것이다. →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

<작문11>

넘비핍피 현상

넘비현상은 우리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쓰레기 소각장, 분뇨, 화장장같은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동네는 사절이라는 뜻이다. 핍피 현상은 우리 앞마당에다 지어주세요라는 뜻으로 자기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넘비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서초구 청계산 화장터 등등이있다. 넘비현상이 계속되면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재활센터같은 혐오스러운 건물을 지을 곳 이없어서 재활센터나 독거노인보호소 같은 곳은 시간이 연장되어 피해를 받게된다. 그리고 만약 그 건물을 유치하게되는 곳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핍피현상의 문제점은 모두가 좋아하는 도서관, 박물관, 월드컵경기장 같은 시설은 서로 유치하고 싶어 싸움이 날 것이다. 넘비와 핍피의 해결방안은 첫째, 화장터나 소각장등등 안좋은 건물을 유치하는 곳에 돈을 주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건물을 지으면 그주변에 넘비현상이 있는 건물을 짓도록 허락 받는 것이다. 셋째, 지역투표를 하여서 지어서는 안된다.

집단이기주의가 없었으면 좋겠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수있으면 넘비현상도 사라질것이다.

1) 맞춤법의 오류

철저히 → 철저히 (형태론적 오류 기타)

연장돼어 → 연장되어 (형태론적 오류 ‘되’와 ‘돼’)

2) 띄어쓰기의 오류

안된다. → 안 된다. (띄어쓰기 오류 ‘안’)

화장장같은 → 화장장 같은 (띄어쓰기 오류 ‘같은’)

우리동네 → 우리 동네 (띄어쓰기 오류 기타)

것이다. →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서술격조사 ‘-이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등등이있다. → 등등이 있다. (띄어쓰기 오류 기타)

재활센터같은 → 재활센터 같은 (띄어쓰기 오류 ‘같은’)

곳이없어서 → 곳이 없어서 (띄어쓰기 오류 기타)

받게된다. → 받게 된다.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건물을 → 그 건물을 (띄어쓰기 오류 기타)

유치하게되는 → 유치하게 되는 (띄어쓰기 오류 기타)

소각장등등 → 소각장 등등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등’)

안좋은 → 안 좋은 (띄어쓰기 오류 ‘안’)

그주변에 → 그 주변에 (띄어쓰기 오류 기타)

안된다. → 안 된다. (띄어쓰기 오류 ‘안’)

줄수있으면 → 줄 수 있으면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수’)

사라질것이다. → 사라질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의존명사 ‘것’)